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영어 지도 교사의
문화지도 인식과 현황

Perspectives and Current Status for 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English Instructor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김희선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초등영어 지도 교사의
문화지도 인식과 현황

Perspectives and Current Status for 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English Instructor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김희선

2010년 2월

초등영어 지도 교사의
문화지도 인식과 현황

Perspectives and Current Status for 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English Instructors

지도교수 홍 경 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김 희 선

2009 년 11 월

김희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희선 인

심사위원

홍경선 인

심사위원

홍경선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12월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2
3. 연구의 구성	3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문화의 정의	5
2. 언어와 문화의 관계	8
3. 문화지도의 필요성	9
4. 초등영어 교육과 문화 교육	13
5. 선행 연구 고찰	15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7
2. 조사 도구	20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22
IV. 연구 결과 및 논의	22
1. 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	23
2.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27
가. 한국인 교사의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27

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33
3. 문화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38
가. 한국인 교사의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	38
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	41
다.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비교	45
4. 논의	56
V. 결론 및 제언	59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8
부록1. 한국인교사(영어전담) 대상 설문지	70
부록2. 원어민교사 대상 설문지	76

표 목 차

<표 III-1>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17
<표 III-2> 한국인 교사들의 성별, 연령, 영어교육 경력 (N=50)	18
<표 III-3>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성별, 연령, 영어교육 경력 (N=38)	18
<표 III-4> 해외 어학연수, 국내 연수 및 문화교육 연수 경험 (N=50)	19
<표 III-5>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출신국가, 학위, 전공 (N=38)	19
<표 III-6>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지 - 한국인 교사용	20
<표 III-7>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지 - 원어민보조교사용	20
<표 IV-1>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한국인 교사(N=50)	23
<표 IV-2>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 한국인 교사(N=50)	24
<표 IV-3>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원어민보조교사 (N=38)	25
<표 IV-4>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한국인 교사(N=50)	25
<표 IV-5> 연령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26
<표 IV-6>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26
<표 IV-7> 영어 연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27
<표 IV-8>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한국인 교사(N=50)	28
<표 IV-9>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지도- 한국인 교사(N=50)	28
<표 IV-10>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사용하는 자료 - 한국인 교사(N=50)	29
<표 IV-11>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30
<표 IV-12>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30
<표 IV-13> 영어 연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31
<표 IV-14>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운 정도 - 한국인 교사(N=50)	32
<표 IV-15> 영어권 문화 지도가 어려운 이유 - 한국인 교사(N=50)	32
<표 IV-16>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 원어민 보조교사	33
<표 IV-17>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지도- 원어민 보조교사(N=38)	33
<표 IV-18>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사용하는 자료 - 원어민 보조교사(N=38)	35
<표 IV-19>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원어민보조교사	35
<표 IV-20>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원어민보조교사	36
<표 IV-21>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운 정도 - 원어민보조교사(N=38)	36

<표 IV-22> 영어권 문화 지도가 어려운 이유 - 원어민보조교사(N=38)	37
<표 IV-23>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한국인 교사(N=50)	38
<표 IV-24> 영어권 문화 지도의 이유 - 한국인 교사(N=50)	39
<표 IV-25>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한국인 교사(N=50)	39
<표 IV-26>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방법 - 한국인 교사(N=50)	40
<표 IV-27>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활용 매체 - 한국인 교사(N=50)	41
<표 IV-28>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원어민보조교사(N=38)	41
<표 IV-29> 영어권 문화 지도의 이유 - 원어민보조교사(N=38)	42
<표 IV-30>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원어민보조교사(N=38)	43
<표 IV-31>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방법 - 원어민보조교사(N=38)	43
<표 IV-32>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활용 매체 - 원어민보조교사(N=38)	44
<표 IV-33>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45
<표 IV-34>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46
<표 IV-35>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7
<표 IV-36> 영어권 문화지도는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47
<표 IV-37>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	48
<표 IV-38>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빠르다	49
<표 IV-39>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지식, 사회 문화적 규범 등이 포함된다	49
<표 IV-40>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다를 뿐,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	50
<표 IV-41> 문화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여준다	50
<표 IV-42> 영어권 문화 지도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51
<표 IV-43>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51
<표 IV-44>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한다	52
<표 IV-45>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어야 한다	53
<표 IV-46>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교사가 먼저 자격을 갖춘 후 할 수 있다.	53
<표 IV-47> 영어교사 연수에 대한 한국인 교사의 요구	54
<표 IV-48> 영어권 문화지도의 방법으로 원어민의 확보가 필요하다	55
<표 IV-49> 지나친 민족 중심 시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55
<표 IV-50> 외국문화를 일찍 접하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	56

국 문 초 록

초등 영어 지도 교사의 문화지도 인식과 현황

김 희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홍 경 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그들과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문화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해봄으로써 현장에서 협동 수업을 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교사의 문화 교육에 대한 괴리감을 줄이고 초등 영어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하여 EPIK소속 원어민보조교사 45명, 원어민 보조교사와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들의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과 현황,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은 초등 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지도방법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연령별,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 연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도 적었다.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인 교사 스스로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한국인 교사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원어민보조교사는 가끔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그 이유로 한국인 교사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을 했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을 하였다. 문화지도는 수업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두 집단에서 같은 응답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 수업시간 중에 관련 문화 요소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셋째, 문화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초등영어 문화 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한국인 교사는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을, 원어민보조교사는 ‘단어, 문장, 어휘 등의 영어의 언어적 표현’을 꼽았다.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와 문화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지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원어민보조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동의하였다. 문화지도를 위한 교사에 대한 요구에서 한국인 교사는 ‘문화지도를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문화 지도 내용, 방법, 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서로 다른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화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영어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훨씬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초등영어지도교사의 문화지도 인식과 현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면 단순히 말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언어에 대한 언어학습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 역사, 관습, 그 나라 국민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 등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문화가 다른 국가의 국민들 간에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능력(Cross-cultural communication)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영어를 국제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영어 교육의 목표도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영어 교과 총괄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로 설정하였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 요소가 실제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하였다. 타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그에 관련된 생

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의 초등영어 교육에서는 교사들이 영어 자체의 교육 뿐 아니라 영어권 문화가 담고 있는 표현이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영어 교육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목표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도 점점 높아져 2007년 48.06%에서 2008년 49.36%, 2009년 65.46%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추진 등으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영어공교육 강화가 중점 교육정책 방안으로 부상하여 영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의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을 자랑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보조교사는 83명이며 출신 국가 또한 북미권, 호주, 필리핀, 페루, 남아공 등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다양한 영어권 국가 출신의 원어민보조교사, 그들과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교사들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문화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 교육 현황 및 요구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문화 교육에 대한 괴리감을 줄이고 초등 영어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대한민국 영어 프로그램) 소속 원어민보조교사 중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그들과 협

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다른 대상이나 다른 환경에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교사의 지도경력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보조교사와 그들과 협동 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의 문화 지도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설문조사는 1회에 한하였다.

넷째, 문화 지도에서 말하는 문화는 미국과 영국의 문화 뿐 아니라 영어권 문화, 즉 영어를 공식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의 문화를 총칭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문화와 언어는 어떠한 관계이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화교육을 포함한 영어교육의 목표와 문화교육의 범위 등에 대해서 논하고 난 후에 이를 통하여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3장은 연구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EPIK 소속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화교육에 대한 현황과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설문 내용은 교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부분과 문화 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요구 분석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들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또 실제 영어 수업 중에 문화교육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으며 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문화교육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교사의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문화지도 현황 및 요구 등을 비교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논의 부분으로서 먼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시 정도를 알아보고, 한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지도의 실태를 알아본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때 한국인 교사의 연령, 영어지도 경력, 영어 연수 이수 시간 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지도의 실태를 알아본 후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원어민보조교사의 전공 분야, 한국 초등학교에서의 영어지도 경력 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논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동 수업을 하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몇 가지 주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가. 한국인 교사(Korean teacher)

한국인 교사란 영어를 전담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담임이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교환 수업으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나. 원어민 보조교사(Native teacher)

원어민 보조교사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되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영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교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정의

문화란 말은 그 의미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막연하여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화란 그 본질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소속된 결과로써 습득된 인간의 삶의 국면이라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람들의 행동이 수용되고 양식화된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그룹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즉 인간이 가지는 문화는 원초 문화와는 달리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일 뿐더러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 인류학자나 언어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Edward Burnett Tylor(1973)의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는 저서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ulture, or civilization, taken in its broad, ethnographic sense,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morals, law,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와 문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된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

팔하는 총칭이다. 즉 Tylor(1973)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 망라하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정의로써 Brown(1980)에 의하면, 문화는 삶의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 감정, 사상이 담겨 있고, 집단 구성원을 서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화란 사람들을 특징 지어주는 사고이자 관습이며 도구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란 사회적 언어적 심리적 언어적 총체이며 인간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외형적 내면적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는 한 공동체에서 공유, 전승되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삶의 방식으로 한 국가의 문화는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공통으로 보이게 되는 관습, 믿음, 가치판단 등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Culture is way of life. Culture is the context within which we exist, think, feel and relate to others. It is the "glue" that binds a group of people together. Culture might be defined as the ideas, customs, skills, arts and tools which characterize given group of people in a given period of time. But culture is more than the sum of parts.

언어학자인 Brooks(1964)는 문화는 지리, 역사, 민속, 문명, 문학과 사회학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문화는 인간 개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리, 역사, 민속, 문명, 문학과 사회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다.

- Culture 1 - biological growth (생물학적 성장)
- Culture 2 - personal refinement (개인적인 품위)
- Culture 3 -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문학과 예술)
- Culture 4 - patterns for living (생활양식)

Culture 5 - the sum total of way of life (생활양식의 총체)

Brooks는 위의 다섯 가지로 구별되는 문화 가운데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소개되어야 할 것은 'Culture 4'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모든 생활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위 규칙의 표본이고, 그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말하며 이러한 표본에 따라 인간은 유아 때부터 자신의 세계를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Culture 4 refers to the individual's role on the unending kaleidoscope of life situations of every kind and the rules and models for attitude and conduct in them. By reference to these models, every human being, from infancy onward, justifies the world to himself as best he can, associates with those around him, and relates to the social order to which he is attached.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문화 개념으로 Hall(1959)은 문화에 일명 침묵의 언어, 행동의 언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덧붙였다. 그는 모든 문화는 10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10가지 기본 요소는 상호작용, 집단형성, 생계유지, 성별구별, 공간 및 영토, 시간, 학습, 놀이, 자기방어수단, 환경개발 등이라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가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온 문화 개념은 대문화(big C)와 소문화(little C)이다. 여기서 대문화란 일명 정형 문화로 사회, 경제, 정치 기관, 역사의 유명한 인물 문학작품, 예술 작품, 과학 등을 포함하며, 소문화란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인간 일상사인, 의식주, 교통수단과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양식 등을 가리킨다. 이 문화 개념은 교과서와 교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의 사회적 측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 가치를 주목받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문화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습관, 관습에서부터 그 사회 구성

원들의 사상, 신념, 태도 등으로 표현되는 생활양식, 행동 유형, 사고방식 등과 같이 내재적인 것까지 폭넓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와 문화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언어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의 모두 관점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발달된 형태로서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이해 없이는 그 언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어져 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된 인간의 외면적, 내면적 환경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인 문화는 그들의 의사 전달 체계인 언어의 사용에 필수적인 배경이 될 뿐 아니라, 언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상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그 언어 속에는 반드시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즉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언어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언어와 문화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류학자는 Sapir와 Whorf이다. Sapir(1949)는 ‘언어는 문화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Language does not exist apart from culture)’라고 하여 언어 상대성 가설(Language Relativity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언어와 사고는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 Whorf(1956) 또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들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 민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철학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철학이나 세계관의 다양성은 언어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어는 문화

를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그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문화를 추적하고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로 그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Brooks(1964)는 언어란 한 나라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고 하여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했다.

Rivers(1981)는 언어는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Language can not be separated completely from the culture in which it is deeply embedded. Any listening to the utterance of native speakers, any attempt at authentic use of language to convey messages, any reading of original text will introduce cultural elements into the classroom(p.315)

Brown(1994)에 의하면 문화는 한 사회의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인간은 언어로서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의 양식이나 관습은 언어에 표현되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한 사회 안에서 언어와 문화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p.163). 그러므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바르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처럼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유산과 다양한 문화 양상을 표현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은 언어를 수단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문화를 배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의사전달의 수단인 언어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습득은 곧 문화 습득이며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 학습 시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문화지도의 필요성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 문학 등 문화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때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내용의 이해는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도구이며, 언어가 사용되는 방법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세계를 보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외국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교육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Seelye(1984)는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교육의 목적을 학생의 측면에서 다음의 7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목표 1 : 문화적으로 다른 행동의 감지 또는 그 기능의 이해(The Sense or Functionality of Culturally Conditioned Behavior)

목표 2 : 언어의 사회적 변인의 상호 작용의 이해(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Variables)

목표 3 : 일상적 상황에서의 관습적 행위의 이해(Conventional Behaviors in Common Situations)

목표 4 : 단어와 어구의 문화적 함의의 이해(Cultural Connotations of words and phrases)

목표 5 : 목표 문화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의 이해(Evaluating Statement about a Society)

목표 6 : 다른 문화의 연구와 호기심의 고취(Researching Another Culture)

목표 7 :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이러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문화 교육이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elye가 제시한 일곱 가지의 목적과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 요소가 실제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한 것도 외국어 교육이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인류평화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학습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자각을 가지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길러 준다는 점에서 문화교육이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ivers(1981: 315)는 이상적인 외국어 교육이란 외국어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와 관련시킬 때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문화적 소재를 다루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학습하는 외국어에 대해 잘못된 경험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경멸과 적개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범(1999, p. 25)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교류를 하기 전에 ‘문화 민감도’, 즉 ‘문화적 차이점을 수용하고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Chen et al(1992)은 문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가. 문화상대주의(ethnorelativism)
- 나. 문화적 차이를 중시하는 마음
- 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능력
- 라. 상대방의 관점을 택하는 능력
- 마. 개방적인 태도

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인정하는 능력

문화상대주의란 두 문화를 비교할 때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거나 더 진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대등하며 단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 문화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교육의 목표는 목표 언어가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위와 더불어 나이, 성별, 사회계층, 거주지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따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 어휘의 함축적인 의미(Cultural connotations)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목표 언어가 속한 사회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목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외국어학습에서의 문화지도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크게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지도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고 사용하는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표 언어를 완전히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 언어가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

둘째,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외국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처럼 인터넷과 통신 등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며, 비교적 서구 물질문명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경험할 기회가 매우 적다. 오히려 서구 문명이 왜곡되어 우리 사회에 과급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연령과 흥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영어 사용권 나라의 문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다소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 문화의 학습은 학생들의 문화장벽(culture-bondage)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준다. 문화 장벽이 있는 사람의 세계관은 단일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얻은 가치관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서 자신의 문화와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할 때 ‘문화 충격(Culture shock)’을 경험하게 된다.(Brown, 1987). 이러한 외국문화에 대한 위축된 정신적 불안감, 당혹감, 충격 등은 외국 문화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도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다른 문화에 의해 가치관이 정해진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 등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감은 문화사대주의를 지나친 적대 감정은 국수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문화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외국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즉, 올바른 문화학습은 목표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좀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만들고, 외국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호진, 2001).

이처럼 언어학습은 문화학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언어학습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문화지도를 할 경우 학습자들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들의 문화에 국한하여 자신들의 문화의 틀 속에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지도는 언어학습의 초기단계인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초등영어 교육과 문화 교육

2007년부터 개편되는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 총괄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로 설정하였다. 그 하위 목표로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며,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 요소가 실제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 타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그에 관련된 생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생활 속에서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표 언어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가 속한 문화 특유의 행동 양식,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양식, 어휘나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 목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가 지리, 역사, 문명, 민속, 문학과 사회학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교육은 문화가 포함한 모든 분야를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초등 영어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해 볼 때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 중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지도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수업에서 어떤 문화 내용들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초등 영어 문화 언어 재료(교과부, 2008)

- (1)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 (2)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 (3)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4)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교육이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교육은 위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내용을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이에 유범(1999)은 영어 교과서가 다루어야 할 문화 영역을 첫째, 영어권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둘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 문화의 생활양식, 셋째 영어권 문화와 우리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언어 표현, 화행, 억양, 등과 같이 소리에 의존하는 언어적 방식과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이 소리 없는 비언어적 방식을 사용한다.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언어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외에도 억양, 담화구조, 화행, 화용 등을 통해 공손한 정도, 격식을 차리는 정도 등을 전달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얼굴 표정, 자세, 몸이 움직임, 시선, 눈동자의 움직임 등을 통해 대화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집중도 등이 표현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은 언어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의도, 감정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영어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교육은 '영어권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양식'에 관련된 문화를 다루면서 이와 함께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영어교사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어 수업시간에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5. 선행 연구 고찰

김월현(2004)은 청주시 거주 중등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 대한 현황과 요구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서는 영어권 문화의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사들의 문화교육 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화진(2002)은 영어 문화지도에 대한 연령별, 영어지도경력별, 영어전담교사와 일반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그리고 영어 연수 이수 시간에 따른 교사들의 흥미와 관심, 인식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문화지도 실태파악을 통해 영미 문화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상민(2007)은 한국인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김월현과 이화진의 논문에서 원어민보조교사까지 범위를 넓혀 경기도내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 지도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위 세 사람의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가장 최근의 것인 이상민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이상민의 논문이 경기지역에 한정된 연구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적용하여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에 이 논문에서 설문문항을 가지고 와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간에 '문화지도 시 의견이 달라 겪었던 어려움'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그들과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교사들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문화지도 현황 및 요구를 조사해 보고 이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요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장에서 협동 수업을 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문화 교육에 대한 피리감을 줄이고 초등 영어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용 설문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였으며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한국인 교사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 대상, 방법, 조사 도구 및 연구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EPIK¹⁾ 소속 원어민보조교사 중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그들과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에 100% EPIK 소속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어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전자메일을 보내 웹기반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담당 장학사의 답변에 따라 본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영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한국인교사 설문지 55부, 원어민보조교사 설문지 45부를 배포하고 회수한 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훼손된 설문지를 제외한 한국인교사 설문지 50부, 원어민 보조교사 설문지 38부 등 총 88부를 대상으로 SPSS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검사지 회수율	검사지			
	배부된 수	회수된 수	유효 처리된 수	유효율
한국인 교사	55	53	50	90.9
원어민 보조교사	45	41	38	84.4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남녀 비율, 연령 및 영어 교육 비율은 <표 III-2>, <표 III-3>과 같다. 한국인 교사 중 남교사 비율은 4.0%이고 여교사 비율은 96.0%이며, 반대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교사가 60.5, 여교사가 39.5%로 남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한국인 교사의 경우 성비 불균형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교사 비율 편중 현상에 따른 것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고 영어 교과 담당 교사가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보조 교사의 경우 본

1)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국공립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초청, 활용 사업이다.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원어민 초청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와서 영어를 지도한다는 특징 상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대 별 교사 비율은 한국인 교사의 경우 20대가 44.0%, 30대가 46.0% 총 9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어민 교사의 경우는 20대가 65.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 경력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의 경우, 1년 이하의 영어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전체의 28%이고, 2년에서 3년 이하는 38%, 4년에서 5년 이하는 22.0%, 6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12.0%로 나타났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한국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경력은 1년 이하가 28.0%, 2년에서 3년 이하는 38.0%로 가장 높았고 4년에서 5년 이하는 22.0%,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12.0%로 나타났다.

<표 III-2> 한국인 교사들의 성별, 연령, 영어교육 경력 (N=50)

성별	빈도(%)	연령	빈도(%)	영어교육경력	빈도(%)
남 여	2(4.0) 48(96.0)	20대	22(44.0)	0-1년	14(28.0)
		30대	23(46.0)	2-3년	19(38.0)
		40대	4(8.0)	4-5년	11(22.0)
		50대	1(2.0)	6년 이상	6(12.0)

<표 III-3>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성별, 연령, 영어교육 경력 (N=38)

성별	빈도(%)	연령	빈도(%)	영어교육경력	빈도(%)
남 여	23(60.5) 15(39.5)	20대	25(65.8)	0-1년	24(63.2)
		30대	8(21.1)	2-3년	10(26.3)
		40대	4(10.5)	4-5년	3(7.9)
		50대	1(2.6)	6년 이상	1(2.6)

다음으로 문화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의 기초자료로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 참여나 해외 거주 경험 여부, 국내 원어민 연수 경험 및 문화교육 연수 여부 등에 대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한국인 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 및 거주 경험은 64.0%였고, 국내 원어민 연수 경험은 80.0%가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교육 연수 경험은 180-300시간, 300시간 이상이 각각 20%와 42%로 총 62% 이상이 180시간에서

3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전혀 문화 교육 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도 4%나 되었다.

<표 III-4> 해외 어학연수, 국내 연수 및 문화교육 연수 경험 (N=50)

해외어학연수 및 거주 경험	빈도(%)	국내 원어민 연수 경험	빈도(%)	문화교육 연수경험	빈도(%)
없다	18(36.0)	없다	10(20.0)	없다	2(4.0)
있다	32(64.0)	있다	40(80.0)	60시간 이하	6(12.0)
				60-12시간	8(16.0)
				120-180시간	3(6.0)
				180-300시간	10(20.0)
				300시간 이상	21(42.0)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출신 국가, 학위, 전공은 <표 III-5>에 제시한 것과 같다.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권 출신 원어민 보조교사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출신 교사 2.6%, 필리핀과 호주 출신 교사가 각각 5.3%로 나타났다. 최종 학위는 학사가 76.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가 15.8%, 기타 5.3% 그리고 무응답도 2.6%였다. 그리고 전공은 교육학이 18.4%, 언어학 7.9%, 과학분야 13.2%, 사회과학 분야가 23.7%, Business 10.5%, Art 13.2%로 나타나 교육학 전공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5>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출신국가, 학위, 전공 (N=38)

출신국가	빈도(%)	학위	빈도(%)	전공	빈도(%)
미국	17(44.7)	학사	29(76.3)	Education	7(18.4)
캐나다	16(42.1)	석사	6(15.8)	Language	3(7.9)
영국	1(2.6)	기타	2(5.3)	Science	5(13.2)
필리핀	2(5.3)	무응답	1(2.6)	Social Science	9(23.7)
호주	2(5.3)			Business	4(10.5)
				Art	5(13.2)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현황과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이상민 논문(2007)과 김월현 논문(2004), 이화진 논문(2002)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인 교사 대상, 원어민보조교사 대상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B초등학교의 영어전담교사 4분, 원어민 보조교사 2분에게 각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평가받아 한국인 전담교사 대상 설문지는 43문항, 원어민 보조교사 설문지는 37문항으로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설문 내용은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현황 및 요구에 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 <표 III-7>과 같다.

<표 III-6>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지 - 한국인 교사용

순서	항 목	문 항수
1	교사의 기초적 인적사항	7
2	교사가 가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	12
3	문화 지도의 실태	5
4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9

<표 III-7>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지 - 원어민보조교사용

순서	항목	문 항수
1	교사의 기초적 인적사항	7
2	교사가 가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	9
3	문화 지도의 실태	5
4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7

<표 III-6>과 같이 한국인 교사 대상의 설문은 교사의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문항 7개, 교사가 가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12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지도의 실태에 관한 문항 5개,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문항 19개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인적 사항은 성별, 연령별, 교직 경력별, 영어지도 경력별로 조사하였다.

둘째, 교사가 갖고 있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 참여나 거주 경험,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 교사 연수 이수, 영어권 문화나 지도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자신의 영어권 문화의 이해 정도와 지식에 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지도의 실태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사용하는 자료와 지도 시에 느끼는 어려움과 그 이유, 문화지도의 필요성, 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전반적인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문화지도의 이점 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문화 지도에 필요한 자료 보급, 문화 지도에 관한 교사 연수, 원어민 교사의 확보 등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표 III-7>에서 보는 것처럼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의 설문은 교사의 기초적인 인적 사항을 알아보는 문항 7개, 교사가 가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9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지도의 실태에 관한 문항 5개,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문항 17개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앞서 다룬 한국인 교사 대상의 설문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만을 변경하였다.

첫째, 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인적 사항은 출신 국가, 성별, 연령별, 최종 학위, 전공, 한국 거주기간,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한 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교사가 가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은 원어민보조교사가 모두 영어권 나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어권 문화의 지식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만을 조사하였다.

셋째, 문화 지도에 대한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내용은 한국인 교사 대상의 설문 내용과 동일하며 원어민보조교사에게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를 묻는

질문도 영어권 문화 지도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인 교사 대상의 설문 내용과 동일하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12월까지 선행 연구, 설문지 제작, 설문 조사 및 분석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문화의 정의, 언어와 문화의 관계, 문화 지도의 필요성, 초등영어 교육과 문화 교육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으며, 2009년 8월과 9월에 걸쳐 설문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EPIK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와 이들과 함께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영어전담교사 및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 자료 중에서 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과 교사가 가진 문화 지식의 정도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지도의 실태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화 지도에 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5단계 척도 문항은 t-검정을 통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문화 지도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인 교사의 연령별, 영어지도 경력별, 국내 영어 연수 이수 시간 등에 따른 교사들의 문화지도에 대한 지식 정도,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원어민보조교사의 전공에 따라, 한국 초등학교에서 영어 지도 경력에 따라 교사들의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해석과 추론적인 해석을 하고자 한다.

1. 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

원어민 보조교사들과 협동 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표 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한국인 교사(N=50)

문항 내용	매우많다	많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초등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지도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0(0.0)	11(22.0)	21(42.0)	17(34.0)	1(2.0)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0(0.0)	4(8.0)	23(46.0)	22(44.0)	1(2.0)

이 질문 ‘초등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지도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와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는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본 문항이었다.

초등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문화나 영어권 문화의 지도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많다’가 0명(0.0%), ‘많다’가 11명(22.0%), ‘보통이다’가 21명(42.0%), ‘거의 없다’가 17명(34.0%), ‘전혀 없다’가 1명(2.0%)을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학교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많다’가 0명(0.0%), ‘많다’가 4명(8.0%), ‘보통이다’가 23명(46.0%), ‘거의 없다’가 22명(44.0%), ‘전혀 없다’가 1명(2.0%)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많은 수의 교사들이 학교 재학 시절, 영어 시간에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상민의 논문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높고 낮음의 항목은 거의 비슷하였다. 이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 연수에서 또는 과거 학교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다는 것을 나타

내 주는 것으로 앞으로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표 IV-2>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 한국인 교사(N=50)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영어권 문화지식의 주 대상 국가 분류	빈도(%)
많이 알고 있다	0(0.0)	북미권 국가(미국, 캐나다 포함)	41(82.0)
학생 지도에 부족함이 없다	11(22.0)	영국	3(6.0)
보통이다	26(52.0)	호주권 국가(호주, 뉴질랜드 포함)	4(8.0)
부족함을 느낀다	13(26.0)	기타	2(4.0)
거의 없다	0(0.0)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 중 ‘영어권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으며, ‘학생들의 지도에 부족함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22.0%, ‘보통이다’라고 답한 교사가 52.0%, ‘부족함을 느낀다’고 답한 교사가 26.0%로 나왔다. 영어권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로 어떻게 얻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서가 36.0% ‘직접 경험으로’가 26.0%였고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와 ‘기타 방법으로’가 각각 8.0% 응답하였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6.0%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서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보통이다’와 ‘부족함을 느낀다’의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초등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 지도에 관한 연수를 좀 더 다루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인 교사들의 문화 지식이 어느 영어권 문화에 대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82.0%의 교사들이 북미권 국가라고 답하였고, 영국과 호주권 국가 및 기타 국가에 대한 것은 18%로 교사들의 문화 지식이 너무 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영어교육에서의 진정한 문화 지도가 이루어진다’에 70.0%의 교사가 동의한 것을 보면 오늘날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 다양한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인 교사 자신이 다양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모두가 영어권 나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어

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원어민 보조교사 스스로 느끼는 이해 정도만을 조사하여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원어민보조교사 (N=38)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충분히 알고 있다	27(71.1)
학생 지도에 부족함이 없다	8(21.1)
보통이다	2(5.3)
부족함을 느낀다	0(0.0)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1(2.6)

원어민 보조교사는 스스로 영어권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71.1%, ‘학생 지도에 부족함이 없다’에 21.1% 등 92.2%가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어권 나라 출신으로 본인이 자라온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교사들의 문화 지식이 어느 영어권 문화에 대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한국인 교사(N=50)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빈도(%)
학교 교육을 통해	3(6.0)
대중 매체를 통해	18(36.0)
직접 경험으로	13(26.0)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	8(16.0)
기타 방법으로(지도서 참고, 원어민과 대화, 인터넷, 친구를 통해 등)	8(16.0)

이러한 영어권 문화의 지식 획득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인 한국인 교사의 연령별, 영어 지도 경력별, 영어 연수 이수 시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식 획득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에 의하면 ‘대중매체를 통해’라고 답한 교사는 20대가 10명(45.5%),

30대가 5명(21.7%), 40대가 2명(50.0%), 50대가 1명(100.0%)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를 통한 영어권 문화 지식 습득 방법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20대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서 같은 문항에 40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표 IV-5> 연령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학교교육	대중매체	직접경험	영화,비디오	기타방법	Total
20대	0(0.0)	10(45.5)	4(18.2)	5(22.7)	3(13.6)	22(100.0)
30대	3(13)	5(21.7)	8(34.8)	2(8.8)	5(21.7)	23(100.0)
40대	0(0.0)	2(50.0)	1(25)	1(25)	0(0.0)	4(100.0)
50대	0(0.0)	1(100.0)	0(0.0)	0(0.0)	0(0.0)	1(100.0)
Total	3(6.0)	18(36.0)	13(26.0)	8(16.0)	8(16.0)	50(100.0)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학교교육	대중매체	직접경험	영화,비디오	기타방법	Total
0-1년	0(0.0)	7(50.0)	2(14.3)	2(14.3)	3(21.4)	14(100.0)
2-3년	3(15.8)	4(21.1)	6(31.5)	3(15.8)	3(15.8)	19(100.0)
4-5년	0(0.0)	3(27.3)	4(36.3)	2(18.2)	2(18.2)	11(100.0)
6년이상	0(0.0)	4(66.6)	1(16.7)	1(16.7)	0(0.0)	6(100.0)
Total	3(6.0)	18(36.0)	13(26.0)	8(16.0)	8(16.0)	50(100.0)

‘대중매체를 통해’하고 답한 교사 중 영어지도 경력 0-1년에 해당하는 교사는 7명(50.0%), 2-3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4명(21.1%), 4-5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3명(27.3%), 6년 이상에 해당되는 교사는 4명(66.6%)으로 영어지도 경력이 6년 이상인 교사가 대중매체를 통한 영어권 문화 지식 습득 방법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끝으로 영어연수 이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을 살펴보

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영어 연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획득 방법

연수시간	학교교육	대중매체	직접경험	영화,비디오	기타방법	Total
없다	0(0.0)	1(50.0)	0(0.0)	0(0.0)	1(50.0)	2(100.0)
60 이하	2(33.3)	3(50.0)	0(0.0)	1(16.7)	0(0.0)	6(100.0)
60-120	0(0.0)	3(37.5)	2(25)	1(12.5)	2(25)	8(100.0)
120-180	0(0.0)	1(33.4)	1(33.3)	1(33.3)	0(0.0)	3(100.0)
180-300	1(10.0)	3(30.0)	0(0.0)	2(20.0)	4(40.0)	10(100.0)
300 이상	0(0.0)	7(33.3)	10(47.6)	3(14.3)	1(4.8)	21(100.0)
Total	3(6.0)	18(36.0)	13(26.0)	8(16.0)	8(16.0)	50(100.0)

‘대중 매체를 통해’라고 대답한 교사 중 영어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1명(50.0%), 60시간 이하의 연수를 받은 교사가 3명(50.0%), 60시간 이상 120시간 이하의 연수를 받은 교사가 3명(37.5%), 120시간 이상 180시간 이하의 연수를 받은 교사가 1명(33.4%), 180시간 이상 300시간 이하의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3명(30.0%), 30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7명(33.3%)로 300시간 이상의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가 대중매체를 통한 영어권 문화지식 습득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교사, 영어연수 이수 시간별로는 300시간 이상의 교사가 가장 많이 이 방법을 통하여 영어권 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가. 한국인 교사의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먼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영어권 국가의 문화 요소가 잘 소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한국인 교사들은 <표 IV-8>

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V-8>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한국인 교사(N=50)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영어권 국가의 문화요소가 잘 소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빈도(%)
매우 잘 되어 있다	0(0.0)
잘 되어 있다	6(12.0)
보통이다	28(56.0)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	16(32.0)
매우 부실하다	0(0.0)

표에 의하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0명(0.0%)이며 ‘보통이다’ 28명(56.0%)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가 16명(32%)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32%가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2%였다. 부실하다고 느끼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권 요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더니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나 언어(단어)의 차이 등이 잘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예) restroom vs toilet...) 생활태도, 식습관 등이 참고자료 등으로 교과서에 더 잘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요소가 잘못 소개되어 있거나 과장 해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북미권 국가 외 다른 영어권 국가에 대한 소개가 적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자료가 다양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표 IV-9>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9>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지도- 한국인 교사(N=50)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나와 있는 문화요소 모두를 가르친다	1(2.0)
영어수업의 문화 요소 중 필요한 때만 지도한다	35(70.0)
가끔 지도하나 부족하다	14(28.0)
거의 하지 않고 있다	0(0.0)

이 표에 의하면 ‘나와 있는 문화요소 모두를 가르친다’는 응답은 겨우 1명(2.0%) 뿐이었고, ‘영어 수업의 문화 요소 중 필요할 때만 지도한다’가 35명(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지도하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14명(28%)였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수업시간 중에 관련 문화 요소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한다고 대답한 교사수가 많은 이유는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밖에 없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한국인 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문화 지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문화지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화 지도를 거의 하고 있는 많은 교사의 경우를 보면 영어권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영어권 문화 및 영어권 문화 지도에 관한 교사 연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표 IV-1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10>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사용하는 자료 - 한국인 교사(N=50)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영화나 비디오	5(10.0)
인터넷(컴퓨터)	30(60.0)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	1(2.0)
교사의 강의식 설명	13(26.0)
무응답	1(2.0)

표에 의하면 교사가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영화나 비디오’를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5명(10.0%), ‘인터넷(컴퓨터)’를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30명(60.0%),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을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1명(2%),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라고 답한 교사가 13명(26.0%)으로 나와 교사가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인터넷(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권 문화 지도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인 한국인 교사의 연령별, 영어 지도 경력별, 영어 연수 이수 시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에 대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연령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컴퓨터)	신문, 잡지나 문화작품	교사의 강의식 설명	Total
20대	3(14.3)	14(66.7)	1(4.7)	3(14.3)	21(100.0)
30대	2(8.7)	11(47.8)	0(0.0)	10(43.5)	23(100.0)
40대	0(0.0)	4(100.0)	0(0.0)	0(0.0)	4(100.0)
50대	0(0.0)	1(100.0)	0(0.0)	0(0.0)	1(100.0)
Total	5(10.2)	30(61.2)	1(2.0)	13(26.5)	49(100.0)

<표 IV-11>과 같이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로 ‘인터넷(컴퓨터)’라고 답한 교사는 20대가 14명(66.7%), 30대가 11명(47.8%), 40대가 4명(100.0%), 50대가 1명(100.0%)으로 20대 교사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라고 답한 교사는 20대가 3명(14.3%), 30대가 10명(43.5%)으로 30대 교사가 강의식 설명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컴퓨터)	신문, 잡지나 문화작품	교사의 강의식 설명	Total
0-1년	2(15.4)	10(76.9)	0(0.0)	1(7.7)	13(100.0)
2-3년	3(15.8)	9(47.4)	0(0.0)	7(36.8)	19(100.0)
4-5년	0(0.0)	6(54.5)	1(9.1)	4(36.4)	11(100.0)
6년이상	0(0.0)	5(83.3)	0(0.0)	1(16.7)	6(100.0)
Total	5(10.2)	30(61.2)	1(2.0)	13(26.5)	49(100.0)

영어권 문화지도 자료로 ‘인터넷(컴퓨터)’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답한 영어지도 경력이 0-1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10명(76.9%), 2-3년에 해당되는 교사

는 9명(47.4%), 4-5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6명(54.5%), 6년 이상에 해당되는 교사는 5명(83.3%)으로 나타났다. 즉 6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지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연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에 대한 응답은 <표 IV-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3> 영어 연수 시간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한국인 교사

연수시간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 (컴퓨터)	신문, 잡지나 문화작품	교사의 강의식 설명	Total
없다	0(0.0)	2(100.0)	0(0.0)	0(0.0)	2(100.0)
60 이하	0(0.0)	4(66.6)	1(16.7)	1(16.7)	6(100.0)
60-120	1(12.5)	6(75.0)	0(0.0)	1(12.5)	8(100.0)
120-180	0(0.0)	2(66.7)	0(0.0)	1(33.3)	3(100.0)
180-300	1(10.0)	7(70.0)	0(0.0)	2(20.0)	10(100.0)
300 이상	3(15.0)	9(45.0)	0(0.0)	8(40.0)	20(100.0)
Total	5(10.2)	30(61.2)	1(2.0)	13(26.5)	49(100.0)

이 표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라 답한 교사 중 영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2명(100.0%), 60시간 이하가 4명(66.6%), 60-120시간이 6명(75.0%), 120-180시간이 2명(40.0%), 180-300시간이 7명(70.0%), 300시간 이상이 9명(45.0%)으로 나타났다. 영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와 30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 등 전 연수 이수 시간대에 걸쳐 모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 연수 경험과 문화 지도 방법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는 영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와 180시간 이상 240시간 이하 연수를 받은 교사 모두 강의식 설명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이상민의 논문에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표 IV-14>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14>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운 정도 - 한국인 교사(N=50)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지도할 때마다 느낀다	1(2.0)
자주 느낀다	17(34.0)
보통이다	22(44.0)
가끔 느낀다	8(16.0)
거의 느끼지 않는다	1(2.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1명(2.0%), ‘자주 느낀다’가 17명(34.0%), ‘보통이다’가 22명(44.0%), ‘가끔 느낀다’가 8명(16.0%), ‘거의 느끼지 않는다’가 1명(2.0%)로 나타나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36.0%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표 IV-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9명(18.0%),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라고 답한 교사는 22명(44.0%), ‘교사 자신의 관심이 부족해서’에는 1명(2.0%)의 교사가 답했고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교사도 15명(30.0%)이나 있었다.

<표 IV-14>와 <표 IV-15>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 지도 시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부족과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의 부족으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IV-15> 영어권 문화 지도가 어려운 이유 - 한국인 교사(N=50)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빈도(%)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부족해서	9(18.0)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22(44.0)
교사 자신의 관심이 부족해서	1(2.0)
시간이 부족해서	15(30.0)
기타	3(6.0)

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

원어민 보조교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영어권 국가의 문화요소가 잘 소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IV-16>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에 의하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명(5.3%)이며 ‘잘 되어 있다’ 1명(2.6%), ‘보통이다’ 21명(55.3%)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가 6명(15.8%), ‘매우 부실하다’ 3명(7.9%)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23.7%가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9%에 불과하였다.

<표 IV-16>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 원어민 보조교사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영어권 국가의 문화요소가 잘 소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빈도(%)
매우 잘 되어 있다	2(5.3)
잘 되어 있다	1(2.6)
보통이다	21(55.3)
부실하여 부족함을 느낀다	6(15.8)
매우 부실하다	3(7.9)
무응답	5(13.2)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시각으로도 현 교육과정에서 영어권 문화 지도 요소가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상민 논문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표 IV-17>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 지도- 원어민 보조교사(N=3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나와 있는 문화요소 모두를 가르친다	4(10.5)
영어수업의 문화 요소 중 필요한 때만 지도한다	14(36.8)
가끔 지도하나 부족하다	4(10.5)
거의 하지 않고 있다	7(18.4)
기타(교과서 무시, 재량영어 지도라 교과서 사용 없음, 내 방식대	6(15.8)

로 지도, 내 설명이 꼭 필요하다 느낄 때 설명해 줌, 시간여유 될 때만 가르친다. 가능한 많이 가르쳐주려고 노력함)
무응답

3(7.9)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와 있는 문화요소 모두를 가르친다'는 응답은 4명(10.5%), '영어 수업의 문화 요소 중 필요할 때만 지도한다'가 14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지도하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4명(10.5%)이었으며 '거의 하지 않고 있다'도 7명(18.4%)이 응답하였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내 방식대로 지도하고 내 설명이 꼭 필요하다 느낄 때 설명해 주며 시간여유 될 때 한정하여 가르친다는 기타의 응답도 6명(15.8%)나 되었다. 이 결과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 수업시간 중에 관련 문화 요소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현상은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밖에 없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한국인 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문화 지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 인 것 같다. 또한 '문화 지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유도 대부분 '교과서 내용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보조교사라 하더라도 보다 많은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고 자료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한국인 교사의 응답과 거의 동일하다. 즉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문화 지도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혹은 국가 차원의 문화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표 IV-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에 의하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영화나 비디오'를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8명(21.1%), '인터넷(컴퓨터)'를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10명(26.3%),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을 이용한다고 답한 교사가 1명(2.6%),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라고 답한 교사가 11명(28.9%)으로 나와 원어민 교사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하는 만큼 '강의식 설명'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Action, Gestures, Game, 실물 모델, 역할극 등과 위 4가지를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한다는 교사도 3명이나 있었다.

<표 IV-18>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사용하는 자료 - 원어민 보조교사(N=3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영화나 비디오	8(21.1)
인터넷(컴퓨터)	10(26.3)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	1(2.6)
교사의 강의식 설명	11(28.9)
기타(Action, Gestures, 게임, 실물 모델, 역할극, 교수기술 등)	8(21.1)

영어권 문화 지도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인 원어민보조교사의 연령별, 영어 지도 경력별, 영어 연수 이수 시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에 대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로 '교사의 강의식 설명'을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0대가 5명(25.0%), 30대가 5명(62.5%), 40대가 1명(50.0%), 50대가 0명(0.0%)으로 한국인 교사와 달리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강의식 설명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IV-19> 연령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원어민보조교사

연령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컴퓨터)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	교사의 강의식 설명	Total
20대	6(30.0)	8(40.0)	0(0.0)	5(25.0)	20(100.0)
30대	1(12.5)	1(12.5)	1(12.5)	5(62.5)	8(100.0)
40대	1(50.0)	0(0.0)	0(0.0)	1(50.0)	2(100.0)
50대	0(0.0)	0(0.0)	0(0.0)	0(0.0)	0(0.0)
Total	8(26.7)	9(30.0)	1(3.3)	11(36.7)	30(100.0)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에 대한 응답은 <표 IV-20>과 같았다.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로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라고 답한 영어지도 경력 이 0-1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5명(29.4%), 2-3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3명(30.0%), 4-5년에 해당되는 교사는 2명(66.7%), 6년 이상인 경력을 가진 교사는 1명 (100.0%)였다. 즉 0-1년에 해당되는 교사가 강의식 방법으로 영어권 문화를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

<표 IV-20>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권 문화의 지도 자료 - 원어민보조교사

구분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 (컴퓨터)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	교사의 강의식 설명	기타	전체
0-1년	2(11.8)	9(52.9)	0(0.0)	5(29.4)	1(5.9)	17(100.0)
2-3년	5(50.0)	1(10.0)	1(10.0)	3(30.0)	0(0.0)	10(100.0)
4-5년	1(33.3)	0(0.0)	0(0.0)	2(66.7)	0(0.0)	3(100.0)
6년이상	0(0.0)	0(0.0)	0(0.0)	1(100.0)	0(0.0)	1(100.0)
Total	8(25.8)	10(32.3)	1(3.2)	11(35.5)	1(3.2)	31(100.0)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표 IV-21>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21>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운 정도 - 원어민보조교사(N=3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의 요소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빈도(%)
지도할 때마다 느낀다	2(5.3)
자주 느낀다	3(7.9)
보통이다	12(31.6)
가끔 느낀다	9(23.7)
거의 느끼지 않는다	12(31.6)

<표 IV-21>의 결과와 같이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2명(5.3%), ‘자주 느낀다’가 3명(7.9%), ‘보통이다’가 12명

(31.6%), ‘가끔 느낀다’가 9명(23.7%), ‘거의 느끼지 않는다’가 12명(31.6%)로 나타나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55.3%의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36%의 한국인 교사들이 문화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을 비교하면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권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운 한국인 교사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표 IV-2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3명(7.9%),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라고 답한 교사는 3명(7.9%), ‘시간이 부족해서’와 기타라는 응답을 한 교사도 11명(28.9%)이나 있었으며 무응답(10명, 26.3%)도 많았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은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정해진 수업시간, 교과서 및 지도서 내용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타 학생들이 세상에는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대답과 교과서에 있는 주제들이 타당성이 적고 해석이 어려우며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해 부족하고 교사 자신도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문화 지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 영어권 문화 지도가 어려운 이유 - 원어민보조교사(N=38)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빈도(%)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부족해서	3(7.9)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3(7.9)
교사 자신의 관심이 부족해서	0(0.0)
시간이 부족해서	11(28.9)
기타(학생들이 세상에는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4), 교과서에 있는 주제들이 타당성이 적음, 해석이 어려움. 너무 어려서 이해 부족,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부족)	11(28.9)
무응답	10(26.3)

영어권 문화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교과

서 및 지도서의 내용 부족과 관련자료 부족, 정해진 수업 시간 등을 답했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수렴하여 영어 시간을 1시간씩 늘려 시간 배당을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여겨진다.

3. 문화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가. 한국인 교사의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

먼저 ‘선생님께서서는 영어교육 시 영어권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IV-2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23>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한국인 교사(N=50)

선생님께서서는 영어교육 시 영어권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교재와 관련하여 항상 지도할 필요가 있다	12(24.0)
문화적 차이가 큰 내용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20(40.0)
가끔씩 시간을 내어 가르친다	16(32.0)
무응답	2(4.0)

위의 <표 IV-23>과 같이 영어권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재와 관련하여 항상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교사는 12명(24.0%), ‘문화적 차이가 큰 내용일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20명(40.0%), ‘가끔씩 시간을 내어 가르친다’는 16명(32.0%), ‘문화지도는 별 필요가 없다’로 답한 교사는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영어를 지도하는 한국인 교사 대부분이 영어권 문화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표 IV-24>와 같이 답하였다.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28명(56.0%),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2명(4.0%),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명(2.0%),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2명(64.0%), ‘해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2명(4.0%), ‘영어권 문화의 세계적 중요성과 보편적 가치 때문에’라고 답한 교사는 6명(12.0%), ‘영어의 언어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는 3명(6.0%),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는 1명(2.0%)로 나타났다.

<표 IV-24> 영어권 문화 지도의 이유 - 한국인 교사(N=50)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28(56.0)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	2(4.0)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32(64.0)
해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2(4.0)
영어권 문화의 세계적 중요성과 보편적 가치 때문에	6(12.0)
영어의 언어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3(6.0)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	1(2.0)
무응답	5(10.0)

이 결과는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화 시대에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영어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지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초등영어 문화 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하는 질문에 대해 <표 IV-2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25>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한국인 교사(N=50)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빈도(%)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표정, 제스처, 시선 등)	6(12.0)
영어의 언어적 표현(단어, 문장, 어휘 등)	6(12.0)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	23(46.0)
영어권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양식	15(30.0)
영어권 사람들의 문화적 산물(미술, 음악, 문학 등)	0(0.0)

초등 영어 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로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표정, 제스처, 시선 등) 6명(12.0%), ‘영어의 언어적 표현(단어, 문장, 어휘 등)’이 6명(12.0%),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이 23명(46.0%), ‘영어권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양식’ 15명(30.0%), ‘영어권 사람들의 문화적 산물(미술, 음악, 문학 등)’에 답한 교사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는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언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 지도의 내용에서도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본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교사들은 <표 IV-26>과 같이 답했다.

<표 IV-26>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방법 - 한국인 교사(N=50)

영어 본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빈도(%)
교재를 가르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르친다	35(70.0)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제를 정해 가르친다	9(18.0)
수업시간에 틈을 내어 가르친다	6(12.0)
기타	0(0.0)

표에 의하면 ‘교재를 가르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르친다’라고 답한 교사는 35명(70.0%),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제를 정해 가르친다’고 답한 교사는 9명(18.0%), ‘수업시간에 틈을 내어 가르친다’고 답한 교사는 6명(12.0%)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가 본 수업 시간 중에 관련된 문화를 다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때 어떤 매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IV-27>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27>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활용 매체 - 한국인 교사(N=50)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때 어떤 매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영화/비디오	21(42.0)
신문, 서적 등의 인쇄물	6(12.0)
인터넷/컴퓨터	10(20.0)
원어민 초청 강의	7(14.0)
역할극	2(4.0)
TV	1(2.0)
기타	2(4.0)
무응답	1(2.0)

이 표에 의하면 ‘영화/비디오’라고 답한 한국인 교사는 21명(42.0%), ‘신문, 서적 등의 인쇄물’이라고 답한 교사는 6명(12.0%), ‘인터넷/컴퓨터’라고 답한 교사는 10명(20.0%), ‘원어민 초청 강의’라고 답한 교사는 7명(14.0%), ‘역할극’이라고 답한 교사는 2명(4.0%), ‘TV’라고 답한 교사는 1명(2.0%), ‘기타’라고 답한 교사는 2명(4.0%)이었으며 무응답도 1명(2.0%) 있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로 한국인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과적인 문화지도 매체로 ‘영화/비디오’와 ‘인터넷(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

먼저 ‘선생님께서서는 영어교육 시 영어권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IV-2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28>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원어민보조교사(N=38)

선생님께서서는 영어교육 시 영어권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교재와 관련하여 항상 지도할 필요가 있다	10(26.3)
문화적 차이가 큰 내용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22(57.9)
가끔씩 시간을 내어 가르친다	3(7.9)
문화지도는 별 필요가 없다	1(2.6)
무응답	2(5.3)

표에 의하면 ‘교재와 관련하여 항상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0명(26.3%), ‘문화적 차이가 큰 내용일 경우에만 필요하다’로 응답한 교사는 22명(57.9%), ‘가끔씩 시간을 내어 가르친다’로 응답한 교사는 3명(7.9%), ‘문화지도는 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도 1명(2.6%)이었으며 무응답도 2명(5.3%)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 시 문화적 차이가 큰 내용을 다룰 경우에만 영어권 문화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원어민 교사들은 <표 IV-29>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IV-29> 영어권 문화 지도의 이유 - 원어민보조교사(N=38)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9(23.7)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	3(7.9)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5.3)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6(68.4)
해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5(13.2)
영어의 언어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3(7.9)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	19(50.0)
기타	4(10.5)
무응답	1(2.6)

<표 IV-29>와 같이 초등영어에서 문화적 요소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9명(23.7%),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3명(7.9%),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2명(5.3%),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26명(68.4%), ‘해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답한 교사가 5명(13.2%), ‘영어의 언어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라고 답한 교사가 3명(7.9%),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라고 답한 교사가 19명(50.0%), 기타에 응답한 교사가 4명(10.5%)이었으며 무응답도 1명(2.6%) 있었다. 많은 수의 원어민 교사가 ‘문

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인 교사와 마찬가지로 응답하였으나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라고 답한 교사가 19명(50.0%)로 나와 1명(2.0%)의 응답률을 보인 한국인 교사 집단과 차이를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표 IV-3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V-30> 영어교육 시 문화 지도의 필요성 - 원어민보조교사(N=38)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빈도(%)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표정, 제스처, 시선 등)	2(5.3)
영어의 언어적 표현(단어, 문장, 어휘 등)	20(52.6)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	15(39.5)
무응답	1(2.6)

초등영어 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로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표정, 제스처, 시선 등)'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명(5.3%), '영어의 언어적 표현(단어, 문장, 어휘 등)'이라고 답한 교사는 20명(52.6%),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이라고 답한 교사는 15명(39.5%)이었고 무응답도 1명(2.6%) 있었다.

이는 원어민보조교사들이 대부분 영어 자체의 언어적 표현과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의 정신적인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아진다.

'영어 본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표 IV-31>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31>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방법 - 원어민보조교사(N=38)

영어 본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빈도(%)
교재를 가르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르친다	11(28.9)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제를 정해 가르친다	18(47.4)
수업시간에 틈을 내어 가르친다	0(0.0)
기타	9(23.7)

‘교재를 가르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르친다’고 답한 교사는 11명(28.9%),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제를 정해 가르친다’고 답한 교사는 18명(47.4%), ‘수업시간에 틈을 내어 가르친다’는 0명(0.0%), 그리고 기타 9명(23.7%)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교사들은 ‘수업내용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얘기 나눈다’, ‘자연스러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르친다’, ‘아이들이 문화의 일부분으로 영어표현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을 때 가르친다’, ‘문화교육자체는 불필요하나 아이들이 원할 땐 예외다’, ‘때시간 문화 주제시간 할애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계획안과 통합하여 가르친다’, ‘문화적 이슈 발생 시 가르친다’ 등으로 답하고 있었다.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때 어떤 매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IV-32>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IV-32> 영어권 문화 학습 시 가장 우수한 활용 매체 - 원어민보조교사(N=38)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때 어떤 매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영화/비디오	12(31.6)
신문, 서적 등의 인쇄물	1(2.6)
인터넷/컴퓨터	7(18.4)
교사의 설명	5(13.2)
원어민 초청 강의	3(7.9)
역할극	4(10.5)
TV	1(2.6)
기타(위 자료를 모두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균형 잡힌 접근, 평소 수업과 말로 섞어서 해주는 거, 교수능력, 문화에 대한 전시물 만드는 것, 매체활용에 따른 교사의 설명)	2(5.3)
무응답	3(7.9)

‘영화/비디오’로 답한 교사가 12명(31.6%), ‘신문, 서적 등의 인쇄물’이라고 답한 교사가 1명(2.6%), ‘인터넷/컴퓨터’라고 답한 교사가 7명(18.4%), ‘교사의 설명’이라고 답한 교사가 5명(13.2%), ‘원어민 초청 강의’라고 답한 교사가 3명(7.9%), ‘역할극’이라고 답한 교사가 4명(10.5%), ‘TV’라고 답한 교사가 1명(2.6%), ‘기타’로 답한 교사가 2명(5.3%)이었으며 무응답이 3명(7.9%) 있었다.

기타에 답한 교사는 7가지 자료를 모두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때 체들을 활용하며 교사가 어떻게 설명해주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지 하는 교수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원어민 보조교사들도 한국인 교사와 마찬가지로 ‘영화/비디오’와 ‘인터넷/컴퓨터’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비교

본 설문지의 끝 부분에는 초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권 문화지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비교하고자 동일한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두 집단에 실시하였다. 대상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2개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두 모집단간의 평균 차이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인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질문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표 IV-33>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한국인교사	0	3(6.0)	1(2.0)	13(26.0)	33(66.0)	0	50(100.0)
원어민교사	3(7.9)	1(2.6)	3(7.9)	17(44.7)	13(34.2)	1(2.6)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520	0.814	2.609	0.011**
원어민교사	37	3.973	1.142		

*** p<0.01, ** p<0.05, * p<0.1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는 유의확률의 값이 0.01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이 문항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t값(2.609)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언어

는 문화의 중요한 수단이다'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즉 한국인 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보다 더 언어가 문화의 중요한 표현수단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상민의 논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두 번째 질문,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3(6.0)	4(8.0)	20(40.0)	23(46.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2(5.3)	5(13.2)	14(36.8)	13(34.2)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260	0.853	1.963	0.054*
원어민교사	38	3.789	1.277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54로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인식에 대한 차이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값(1.963)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 나타난 한국인 교사보다 원어민보조교사가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세 번째 질문,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에 대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유의확률의 값이 0.000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값(3.810)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 논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2(4.0)	3(6.0)	16(32.0)	29(58.0)	50(100.0)
원어민교사	3(7.9)	7(18.4)	6(15.8)	11(28.9)	11(28.9)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440	0.787	3.810	0.000***
원어민교사	38	3.526	1.310		

*** p<0.01, ** p<0.05, * p<0.1

네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지도는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응답은 <표 IV-36>과 같다.

<표 IV-36> 영어권 문화지도는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한국인교사	0	2(4.0)	7(14.0)	22(44.0)	18(36.0)	1(2.0)	50(100.0)
원어민교사	3(7.9)	2(5.3)	4(10.5)	16(42.1)	12(31.6)	1(2.6)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49	4.143	0.816	1.289	0.201 *
원어민교사	37	3.865	1.182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201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이 문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즉 두 집단이 모두 영어권 문화지도는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민 논문의 결과와 같다.

다섯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에 대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한국인교사	1(2.0)	1(2.0)	7(14.0)	16(32.0)	24(48.0)	1(2.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2(5.3)	9(23.7)	15(39.5)	8(21.1)	0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49	4.245	0.925	3.038	0.003***
원어민교사	38	3.553	1.201		

*** $p < 0.01$, ** $p < 0.05$, * $p < 0.1$

유의확률의 값이 0.003으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간 이 문항의 인식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t값(3.038)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집단이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민의 논문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여섯 번째 질문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빠르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38>과 같이 나타났다. 유의확률의 값이 0.000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이 문항의 인식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t값(4.029)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빠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서 두 집단 모두 다소 약하게 수긍하고 있다고 나타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표 IV-38>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빠르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3(6.0)	5(10.0)	21(42.0)	21(42.0)	50(100.0)
원어민교사	3(7.9)	8(21.1)	10(26.3)	10(26.3)	7(18.4)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200	0.857	4.029	0.000***
원어민교사	38	3.263	1.223		

*** p<0.01, ** p<0.05, * p<0.1

일곱 번째 질문,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관한 시각도 포함된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39>와 같다. 유의확률의 값이 0.004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관한 시각도 포함 된다’는 문항의 인식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t값(2.998)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이 문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39>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지식, 사회 문화적 규범 등이 포함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6(12.0)	26(52.0)	17(34.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7(18.4)	2(5.3)	17(44.7)	8(21.1)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180	0.720	2.998	0.004***
원어민교사	38	3.474	1.310		

*** p<0.01, ** p<0.05, * p<0.1

여덟 번째 질문,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지 특정한 문화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40>과 같다.

<표 IV-40>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다를 뿐,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1(2.0)	7(14.0)	41(82.0)	50(100.0)
원어민교사	5(13.2)	3(7.9)	2(5.3)	3(7.9)	25(65.8)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760	0.591	2.740	0.009***	
원어민교사	38	4.053	1.506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09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간 이 문항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값(2.740)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다를 뿐,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한 인식을 매우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질문, '문화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여준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표 IV-41> 문화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여준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2(4.0)	17(34.0)	30(60.0)	50(100.0)
원어민교사	2(5.3)	3(7.9)	3(7.9)	21(55.3)	9(23.7)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520	0.677	3.665	0.000***	
원어민교사	38	3.842	1.053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00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 이 문항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값(3.665)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문화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여준다’고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 지도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표 IV-42> 영어권 문화 지도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3(6.0)	18(36.0)	28(56.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1(2.6)	4(10.5)	19(50.0)	10(26.3)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460	0.706	3.298	0.001***
원어민교사	38	3.789	1.189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01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 문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값(3.298)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영어권 문화 지도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한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3>과 같다.

<표 IV-43>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4(8.0)	16(32.0)	29(58.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1(2.6)	7(18.4)	16(42.1)	10(26.3)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460	0.734	3.384	0.001***
원어민교사	38	3.711	1.206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01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 문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값(3.384)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에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두 번째 질문, ‘영어교육에서의 진정한 문화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영국, 미국 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한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표 IV-44>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0	7(14.0)	16(32.0)	27(54.0)	50(100.0)
원어민교사	2(5.3)	0	7(18.4)	10(26.3)	19(50.0)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400	0.728	1.255	0.213
원어민교사	38	4.158	1.079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213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이 문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모두 ‘영어교육에서의 진정한 문화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영국, 미국 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열세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

어야 한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5>와 같다.

<표 IV-45>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어야 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0	1(2.0)	4(8.0)	21(42.0)	24(48.0)	50(100.0)
원어민교사	2(5.3)	2(5.3)	4(10.5)	17(44.7)	13(34.2)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4.360	0.722	2.011	0.047**	
원어민교사	38	3.974	1.078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47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 간 이 문항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값(2.011)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교사보다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한국인 교사들은 영어권 문화지도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열세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6>과 같다.

<표 IV-46>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교사가 먼저 자격을 갖춘 후 할 수 있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1(2.0)	4(8.0)	14(28.0)	19(38.0)	12(24.0)	50(100.0)
원어민교사	9(23.7)	9(23.7)	11(28.9)	5(13.2)	4(10.5)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3.740	0.986	4.426	0.000***	
원어민교사	38	2.632	1.282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000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

조교사 간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교사가 먼저 자격을 갖춘 후 할 수 있다’의 인식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값(4.426)이 양수이므로 한국인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이 문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교사는 영어권 문화지도를 교사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권 문화지도에 교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영어권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한국 출신의 한국인 교사와 영어권 나라 출신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출신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표 IV-47> 영어교사 연수에 대한 한국인 교사의 요구

1. 영어교사 연수 시 영어권 문화지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한국인교사	0	1(2.0)	7(14.0)	18(36.0)	24(48.0)	50(100.0)

2. 영어권 문화 지도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한국인교사	1(2.0)	4(8.0)	11(22.0)	16(32.0)	18(36.0)	50(100.0)

이와 관련하여 <표 IV-48>에서는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 연수나 영어권 문화 지도 전문 연수에 대한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지 보여주고 있다. 영어교사 연수 시 영어권 문화지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교사는 84%, 영어권 문화지도 전문 연수도 필요하다고 요구한 교사는 6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인 교사가 영어권 문화 지도를 하기 위해 교사 자신이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민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열네 번째 질문, ‘영어권 문화지도의 방법으로 원어민의 확보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8>과 같다.

<표 IV-48> 영어권 문화지도의 방법으로 원어민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4(8.0)	9(18.0)	17(34.0)	14(28.0)	6(12.0)	50(100.0)
원어민교사	4(10.5)	6(15.8)	8(21.1)	13(34.2)	7(18.4)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3.180	1.119	-0.638	0.525
원어민교사	38	3.342	1.258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525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이 문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영어권 문화지도의 방법으로 원어민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상민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열다섯 번째 질문, ‘지나친 민족 중심 시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49>와 같다.

<표 IV-49> 지나친 민족 중심 시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한국인교사	3(6.0)	6(12.0)	16(32.0)	15(30.0)	9(18.0)	1(2.0)	50(100.0)
원어민교사	6(15.8)	2(5.3)	6(15.8)	15(39.5)	9(23.7)	0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49	3.429	1.118	-0.270	0.788
원어민교사	38	3.500	1.351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788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이 문항의 인

식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인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지나친 민족 중심 시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데 같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열여섯 번째 질문, ‘외국문화를 일찍 접하면 정체성을 잃게 되어 결국 문화적 사대주의에 물들게 된다’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50>과 같다.

<표 IV-50> 외국문화를 일찍 접하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인교사	9(18.0)	27(54.0)	9(18.0)	3(6.0)	2(4.0)	50(100.0)
원어민교사	16(42.1)	10(26.3)	8(21.1)	1(2.6)	3(7.9)	38(100.0)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한국인교사	50	2.240	0.960	0.694	0.489
원어민교사	38	2.079	1.217		

*** p<0.01, ** p<0.05, * p<0.1

유의확률의 값이 0.489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문항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모두 외국 문화를 일찍 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영어권 나라 출신인 원어민보조교사에 비해 한국인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교 재학 시절이나 영어 시간에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고, 해외 연수나 거주 경험이 없어 직접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영어권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 교육적인 내용으로의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 지도에 관한 연수를 좀 더 다루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문화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수업시간 중에 관련 문화 요소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한다고 대부분의 교사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밖에 없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한국인 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문화 지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문화지도할 수 없었다. 또한 문화 지도를 거의 하고 있는 많은 교사의 경우를 보면 영어권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영어권 문화 및 영어권 문화 지도에 관한 교사 연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 지도의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부족과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의 부족으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원어민보조교사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문화 지도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학교 혹은 국가 차원의 문화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를 지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인 교사들은 인터넷(컴퓨터)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었는데 원어민보조교사들은 교사의 강의식 설명이 인터넷(컴퓨터)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는 한국인 교사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기에는 다양한 자료가 쌓여있는 인터넷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는 직접 체험한 자기나라 문화를 직접 강의식으로 손짓, 발짓 섞어가며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 교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원어민보조교사는 '균형 잡힌 문화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라고 응답하

였다.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인 교사는 본 수업 시간 중에 관련된 문화를 다뤄주는 것이라고 답한 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답하고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문화지도 매체로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영화나 비디오를 선호하고 있었다.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교사는 원어민 각자가 받은 교육이나 생활한 국가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컸고 책상위에 앉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에 원어민보조교사들은

- 1) 때때로 수업 중에 문화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싶지만 한국인 교사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짧게 설명하라고 하며,
- 2) 때로는 한국어로 설명하지 않고는 문화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3) 한국사회가 폐쇄적이라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4)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족하다.(언어 장벽으로 설명이 무척 어렵다)
- 5) 일반적인 잘못된 영어 회화, 한국인 교사 및 원어민 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다.
- 6) 가끔 문화적 차이가 가르치는 걸 힘들게 하고 언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 7)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업시간이 너무 강의 같으며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 8) 한국 교사들이 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 9) 내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 10) 한국 교사들이 한국어로 설명해서 방해가 된다.
- 11) 학생들이 영어는 배우지만 많은 문화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한국 문화는 아름답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를 배우는 것은 좋으나 영국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너무 많이 노출되어지는 게 걱정이다.
- 12) 현재의 실제적인 문화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 6학년 교과서에 미

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신발을 벗고 있다.

13) 가끔 문화에 배우는 것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걸 배우는 것과 관련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둘 사이의 차이를 받쳐주어야 한다.

14) 학생들의 흥미 부족과 한국인 교사들의 이해 부족 등의 응답을 하였다.

문화지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원어민보조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동의하였다. 문화지도를 위한 교사에 대한 요구에서 한국인 교사는 ‘문화지도를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다양한 영어권 국가 출신의 원어민 보조교사, 그들과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문화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교육현황 및 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협동 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의 문화 교육에 대한 피리감을 줄이고 초등 영어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초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들은

초등 영어 교사 연수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지도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2%에 불과하여 영어권 문화나 지도방법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연령별, 영어지도 경력별, 영어 연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적었다.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인 교사 스스로가 영어권 문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문화 지도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 교사는 문화 지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원어민보조교사는 가끔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한국인 교사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을 했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을 하였다. 문화지도는 수업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두 집단에서 같은 응답을 하였으며 이 결과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 수업시간 중에 관련 문화 요소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현상은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밖에 없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한국인 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문화 지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다. 문화관련 내용 및 지도 방법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고 문화 연수 기회 확대 및 제공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하겠다.

셋째, 문화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모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초등영어 문화 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한국인 교사는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관습, 행동 등’을 꼽았고 원어민보조교사는 ‘단어, 문장, 어휘 등의 영어의 언어적 표현’을 꼽았다.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와 문화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지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원어민보조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동의하였다. 문화지도를 위한 교사에 대한 요구에서 한국인 교사는 ‘문화지도를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가 문화 지도 내용, 방법, 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서로 다른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화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영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뒤따른다면 훨씬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본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영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직접 배포하다 보니 한국인 교사 50명, 원어민보조교사 38명의 비교적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도록 영어권 문화와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영어권 문화 이해 면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권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운 한국인 교사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인 교사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더 확대하여 영어권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문화지도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 관련 자료의 제작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교사는 원어민 각자가 받은 교육이나 생활한 국가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컸고 책상위에 앉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반응이었다. 반면에 원어민보조교사들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족, 즉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

왔고 영어권 나라의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나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효율적인 협동 수업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사전 협의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 손충기. (2006).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태영출판사.
- 유 범. (1999). 초등영어교육과 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이완기. (2007). 초등영어교육론(개정4판). 서울: [주]문진미디어
- 곽민정. (1998).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
- 김미숙. (2004). 초등영어 교육의 문화지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
- 김월현. (2004). 문화교육에 대한 현황과 요구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
- 김현성. (2001). 초등영어 문화 교육 연구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
- 노현주. (2002).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분석. 공주대학교 석사.
- 문남희. (2006).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 금오공과대학교 석사.
- 박유신. (2001).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
- 박준철. (2009). 초등영어교육에서 게임을 활용한 문화 지도의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석사.
- 박혜정. (2001). 초등영어교육에서 문화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
- 박효선. (2003).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분석. 연세대학교 석사.
- 송미경. (2001). 영미 문화교육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
- 윤정미. (2007).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법(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
- 이경희. (2002). 초등영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건국대학교 석사.
- 이계자. (2005). 초등영어의 영미문화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
- 이상민. (2007).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지도에 대한 현황과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

- 이상용. (2001). 초등 영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영미문화지도. 인천교육대학교 석사.
- 이완기, 차경완. (1999).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연구. 영어 교육, 54(1).
- 이정미. (2007). 원어민활용 문화지도를 통한 초등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석사.
- 이영희. (2002). 초등영어 문화지도 모형 개방을 위한 연구. Primary English Education. 8(1) 167 -212.
- 이호진. (2001).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미문화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 이화진. (2002). 초등학교 영어지도교사의 영미문화지도 실태분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
- 이희순. (2004).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문화지도를 통한 영어 학습 효과 증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 임수정. (2003). 초등영어의 영미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석사.
- 장정희. (2000).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방안(초등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석사.
- 정매라. (2009).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 조순희. (2000). 문화지도를 통한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
- 황현숙. (2003). 영어학습 흥미도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

- Brown, H. D. (1980).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rown, H. D. (1987).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rown, H. D. (1994).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rooks, N (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N.Y.: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4
- E. Sapir (1958): *Culture, Language and Personality* (ed. D. G. Mandelbau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Rivers.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pir. E. (1949). *Selected Writings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D.G. Mandelbau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elye.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ors*(1st ed.)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 Tylor, E. B. (1973).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Whorf, B.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ed.), J. B. Carroll. Cambridge, Mass: MIT Press.

Abstract

Perspectives and Current Status for 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English Instructors

Hee-Sun Kim

**Jeju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Major
Thesis Director Kyung-Sun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spectives of Korean instructors and native speaker assistant instructors teaching joint English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regarding cultural edu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such edu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solicits suggestions from elementary English instructors for reducing the cultural gaps between the native speaker instructors and Korean instructors engaging in joint classes together, and outlines an effective method for 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45 native speaker assistant instructors affiliated with EPIK and 55 Korean instructors engaging in joint English classes together were surveyed on their understanding, current status, and needs regarding cultural guidance.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instructors engaging in joint classes with native speaker instructors in elementary schools were found to have had little learning experience in their native speaker instructors' cultures and little exposure to

the teaching methods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To the questions about their knowledge of the English-speaking cultures, Korean instructors replied, by admitting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such cultures.

Second, for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education in classes, both the Korean instructors and native speakers answered that the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are being taught. In delivering such education, Korean instructors expressed 'feeling some difficulty,' while native speaker instructors answered 'feeling little or no difficulty.' Both groups answered that cultural education is executed only when deemed necessary during classes, which suggested that cultural education is executed only when relevant cultural elements arise during classes rather than instructors proactively engage in cultural education.

Third, on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education, both Korean instructors and native speakers chose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as the strongest motivation. For the element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in elementary culture education, Korean instructors chose "values, conventions, behaviors of those from English-speaking countries," while native speakers chose "linguistic expressions of English such as vocabulary and sentences." Regarding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Korean instructors exhibited a stronger understanding compared to native speakers.

Also, both groups agreed that they need easy access to relevant resources. As for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Korean instructors were found to be thinking that "one must be up to expectations for cultural education" and thus a teacher training program on culture is required.

If Korean instructors and native speaker instructors discuss contents, methods, and resources of cultural education as well as different knowledge and points of view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before each lesson, more effective cultural education is expected. With supportive policies and concerns, even more efficient and high-quality English education shall be achieved.

부록1. 한국인교사(영어전담) 대상 설문지

●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학교 일로 매우 바쁘실 줄 알면서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영어교육의 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원입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설문 결과는 연구 논문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2009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김희선 올림

Notice: 여기서 말하는 영어권 국가와 영어권 문화는 영국, 미국 뿐 아니라 영어를 공식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하는 모든 국가와 그 국가의 문화를 총칭합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영어전담교사 여러분들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교육경력: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1-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4. 영어지도 경력: ① 0-1년 ② 2-3년 ③ 4-5년 ④ 6년 이상
5.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 참여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6. 국내에서 영어 원어민이 가르치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7. 선생님께서 받으신 영어 연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60시간 이하 ③ 60-120시간
④ 120-180시간 ⑤ 180-300시간 ⑥ 300시간 이상

19. 영어 본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를 학습시킬 때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교재를 가르치다가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르친다.
 ②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제를 정해 가르친다.
 ③ 수업시간에 틈을 내어 가르친다.
 ④ 기타()
20.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영화나 비디오 ② 인터넷(컴퓨터) ③ 신문, 잡지나 문학작품
 ④ 교사의 강의식 설명 ⑤ 기타()
21.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① 지도할 때 마다 느낀다. ② 자주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느낀다. ⑤ 거의 느끼지 않는다.
22. 선생님께서 영어권 문화를 지도하실 때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부족해서 ②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③ 교사 자신의 관심이 부족해서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기타()
23. 영어권 문화를 학습할 때 어떤 매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화/ 비디오 ② 신문, 서적 등의 인쇄물 ③ 인터넷/컴퓨터
 ④ 교사의 설명 ⑤ 원어민 초청 강의 ⑥ 역할극
 ⑦ TV ⑧ 기타 ()
24. 영어권 문화 지도 시 원어민 보조교사와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각 설문을 잘 읽고 나서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알맞은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3번)

< 보 기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5.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
1 2 3 4 5
26.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1 2 3 4 5
27. 언어와 문화는 서로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1 2 3 4 5
28. 영어권 문화지도는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9. 영어권 문화지도는 초등영어교육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
1 2 3 4 5
30.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빠르다.
1 2 3 4 5
31.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관한 시각도 포함된다.
1 2 3 4 5
32.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지 특정한 문화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
1 2 3 4 5
33. 문화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여준다.
1 2 3 4 5
34. 영어권 문화 지도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1 2 3 4 5
35.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1 2 3 4 5
36. 영어교육에서의 진정한 문화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영국, 미국 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골고루 다뤄야 한다.
1 2 3 4 5

37. 영어권 문화 지도를 위해서 대중매체나 관련 자료가 보급되어야 한다.
1 2 3 4 5
38. 영어권 문화 지도는 교사가 먼저 자격을 갖춘 후 할 수 있다.
1 2 3 4 5
39. 영어교사 연수 시 영어권 문화지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1 2 3 4 5
40. 영어권 문화지도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
1 2 3 4 5
41. 영어권 문화지도의 방법으로 원어민의 확보가 필요하다.
1 2 3 4 5
42. 지나친 민족 중심 시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1 2 3 4 5
43. 외국문화를 일찍 접하면 정체성을 잃게 되어 결국 문화적 사대주의에 물들
게 된다.
1 2 3 4 5

부록2. 원어민교사 대상 설문지

Cultural Education in Schools Questionnaire

As a current teacher, I have becom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cultural aspects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I expect that your answers will be helpful in my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have a good day.

October, 2009

Post gradua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ying Elementary Education,
Hee-sun Kim

Notice: The "English-Speaking World" suggests that all countries will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number or explain your answer in the blank.

※ General information about teacher's background

1. Nationality: ()
2. Gender: ① male ② female
3. Age group: ① 20-29 ② 30-39 ③ 40-49 ④ 50-59 ⑤ over 60
4. Degree: ① Bachelor's ② Master's ③ Ph. D. ④ Other
5. Major: ()
6. Time spent in Korea
① less than 1 year ② 1-2 years ③ 3-4 years
④ 5-6 years ⑤ over 6 years
7.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English at an elementary school in Korea?
① less than 1 year ② 1-2 years ③ 3-4 years
④ 5-6 years ⑤ over 6 years

④ Not necessary

13. Why do you think teachers teach cultural factors in an elementary English class?(Choose two)

- ① To help students understand English conversation fully.
- ② To help students learn and comprehend English faster.
- ③ To help students use English frequently and accurately.
- ④ To help students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 ⑤ To help students become educated and well-mannered members of society .
- ⑥ Because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valued globally.
- ⑦ Because students will be able to more clearly understand the linguistic structure of English.
- ⑧ Because students will have a tolerant view of different cultures and learn to be understanding.
- ⑨ Other ()

14. What cultural factors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 ① Nonverbal expressions in English.(e.g. gesture, facial expression)
- ② Verbal expressions in English.(e.g. word, sentence, vocabulary)
- ③ The values, customs and behavior of peopl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 ④ Their behavioral patterns and lifestyles.

15.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teach students about the various culture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an English class?

- ① Teach the culture in accordance to the context in the textbook when applicable.
- ② Plan extra teaching time: choose topics and teach them.
- ③ Teach about culture during break time in the class.
- ④ Other ()

16. What materials or methods do you use when you teach students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 ① Movie/Video
- ② Computer/Internet
- ③ Newspaper, magazine or literature
- ④ Lecture/explanation
- ⑤ Other ()

17. Do you have a difficult time teaching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 ① whenever I teach it.(all the time)
- ② sometimes
- ③ occasionally
- ④ rarely
- ⑤ No, not at all.

18. If so, why do you feel it is difficult to teach students about culture?

- ① Lack of cultural contents in the English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 ② Lack of teaching materials
- ③ Little interest in teaching about the culture.
- ④ Lack of time.
- ⑤ Other ()

19. In your opinion, what method of learning about cultur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the most effective?

- ① Movie/Video
- ② Printed materials (e.g. newspapers, books, etc)
- ③ Computer/Internet
- ④ Teacher's explanation
- ⑤ A lecture from a special native-English-speaking guest
- ⑥ Role-play
- ⑦ TV
- ⑧ Other()

20. Please write about experiences that make you feel frustrated when you teach about the English-speaking world's culture with a Korean teacher.

()

■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check your answer. (21-37)

1	2	3	4	5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eutral	-	Agree	-	Strongly agree

21. Language is important for expressing culture.
1 2 3 4 5
22. Learning a language is a component of learning culture.
1 2 3 4 5
23.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1 2 3 4 5
24. Learning about cultur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helpful in improving one's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1 2 3 4 5
25.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should be introduced to students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1 2 3 4 5
26. If students had more knowledge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they could communicate more successfully.
1 2 3 4 5
27.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includes not only linguistic knowledge, but also knowledge about social customs and values.
1 2 3 4 5
28. Each country's culture is different and unique. We should not judge or discriminate against any particular one.
1 2 3 4 5
29. Teaching students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will provoke curiosity and interest in learning the English language.
1 2 3 4 5
30. Teaching students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effective in helping students understand other cultures.
1 2 3 4 5

31. Teaching students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is an effective way to become part of a global society.

1 2 3 4 5

32. When teaching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educators not only need to focus on the culture of the UK and US, but also on the cultures of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1 2 3 4 5

33. When teaching students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the target culture should be provided for the teacher.

1 2 3 4 5

34. Teachers need to be certified in teaching culture in order to teach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1 2 3 4 5

35. In order to teach about the cultur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properly, native English teachers are needed.

1 2 3 4 5

36. Students can have an excessive sense of nationalism and cultural prejudice if they are not exposed to other cultures.

1 2 3 4 5

37. Students can lose their cultural identities or become biased against their own culture if they are exposed to other cultures too early.

1 2 3 4 5